

## 제주도 高山里 출토 隆起文土器

李 清 圭

### I.

제주도에 처음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구석기시대부터라는 주장이 있지만 그 당시의 제주도는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 아니고 대륙과 연결된 陸地部로서 오늘날과 다르다.

제주도의 역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제주도를 섬으로 인식하는 것을 바탕으로 두고 있으며, 따라서 섬으로서의 제주도에 사람이 처음 건너와 살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 하는 질문이 곧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제주도 역사의 출발점이 된다. 이렇게 전제하였을 때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1만년전에 시작되는 沖積世(Holocene)를 즈음해서 전개되는 中石器時代와 그 이후의 신석기시대에 초점을 두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 중 중석기시대 유적은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확인되거나 주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시대의 구체적인 文化相에 대한 연구는 비단 제주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로 보아도 초기적 단계에 있는 것이다.

사실이 그렇다면 지금까지 발굴 및 地表調査에 의해서 확인된 섬으로서 제주도에 가장 오랜 사람이 살던 증거는 신석기시대로 내려 올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여기서 소개하는 北濟州郡 翰京面 高山里 출토의 이른바 隆起文土器가 주목된다.

## II.

한반도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토기 범주에 속한다는 토기가 공식적으로 제주도에 출토하였다고 처음 보고한 것은 任孝宰와 Richard Pearson이 1967년 제주도 전역에 대한 간략한 지표조사의 보고문을 발표할 때였다.

그 보고문에서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sup>1)</sup>

The Ora-li 1-dong Site yielded "comb-decorated" pottery, which from our analysis, falls into the Tudo Bold Type proposed by Sample, dating probably to about 1,000 B.C., although the radiocarbon date is 1450 B.C.

이에 보듯 제주시 오라 1동에서 표토채집한 빗살무늬토기를 신석기시대의 가장 늦은 시기인 頭島期에 해당하고 그 寶年代는 기원전 1천년전 경으로 인식하였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토기가 정식 발굴조사에 의한 것이 아니며, 현재 同 토기의 소재가 분명치 않아 그 구체적인 형식을 확인할 수가 없어 앞서의 주장에 대해 신뢰도를 측정할 아무런 근거를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

정식발굴조사에 의해 앞서의 제주도 신석기시대 문화설이 분명하게 확인된 것은 북제주군 朝天邑 北村里 속칭 고두기 언덕의 바위그늘 집자리 유적을 1986년 제주대학교박물관에서 시행한 발굴조사를 통해서이다.<sup>2)</sup>

文基善에 의해 1973년에 정식 학계에 보고된 이 유적은 1985년부터 쓰레기

1) Im, H. J. and Pearson, R., 1970, <Preliminary Archaeological Research on Cheju Island, Korea>, Proceeding of International Congress of Anthropological & Ethnological Sciences, pp.199~203.

2)李清圭, <北村里遺蹟-신석기시대 바위그늘 집자리>, 濟州大學校 博物館 遺蹟 調査報告 第四輯, 1988.

매립터로 지정되어 자칫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매장될 위기에 일종의 救濟發掘의 입장에서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는데, 그 결과 同 유적의 최하층이 押捺점렬무늬가 口緣部에 施文된 土器群이 출토하는 문화층임이 확인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토기중에는 경남해안 등지에서 많이 발견된 바 있는 이른바 晩期 櫛文土器로서 二重口緣土器 형식이 있어 형식적으로 양 지역의 交叉年代 추정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同 층위의 조개덩어리를 시료로 한  $2920 \pm 25$  B. P. 라는 C-14 연대가 검출되어 층위론, 형식론 그리고 絶對年代의 결과가 이 유적이 명실공히 신석기시대에 속하는 제주도 유적임을 분명하게 해주었다.

또한 북촌리 유적의 口緣部 압날 점렬무늬토기는 북제주군 翰林邑 月命里 속칭 한들굴이라는 동굴 입구 집자리에서도 확인되어<sup>3)</sup>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말기에 제주도 여러 곳에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거주했음이 입증된 것이다.

### · III

이제 1986년 북촌리 유적의 발굴조사에 의해 1960년대 후반부터 제기되어 온 제주도 신석기시대 후기 문화의 실상에 대한 의문은 일단락 맺어졌지만,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는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제주도 신석기문화를 입증해 줄만한 증거를 과연 찾지 못하는가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에 제주드에서처럼 아직까지 신석기시대에 들어서 중기에 이르기까지 유적이 확인되지 않은 지역으로 충청 및 전라 지방이 있다.

이 지역에서는 내동강 및 한강 유역에서 성행한 빗살무늬토기의 퇴화 형식만이 확인되었을 뿐으로 제주도의 경우도 그와 동일한 범주로 이해할 수 없겠는가 하는 것이다.

3) ① 李清圭, 《濟州島遺蹟-先史遺蹟地表調查報告》, 濟州大學校 博物館 遺蹟調查報告 第二輯, 1986.

② 李清圭, 康昌和, “제주도지방의 선사문화와 동굴·바위그늘 주거지”, 《第4紀學會誌》1, 1987, pp. 47~67.

이러한 의문에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은 북촌리 출토 구연부 압날 점렬무늬 토기이다.

이 형식의 토기가 출토한 최하층의 방사성탄소연대는 앞서 본 것처럼 B.C. 10C를 가리키고 있지만, 한반도 남해안 지방에서 이 시기의 표식적이면서 동 유적에서 共伴出土한 이중구연토기와는 전혀 형식을 달리하기 때문에 혹시 제작 사용기가 더 거슬러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다.

부산의 연구자에 따르면 전형적인 빗살무늬토기의 沈線文 수법에 앞서 押引, 押型文의 수법이 신석기시대 전기에 유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sup>4)</sup> 북촌리 토기의 압날 수법이 비록 압인, 압형 수법과는 크게 다르나 이와 같은 시문수법에 입각한 단일노선적인 編年論의 입장이라면 앞서의 의문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더우기 압날무늬 수법의 점렬무늬토기가 襄陽 鰲山里 유적의 최하층에서 출토된 것을 고려하여 그러한 추측을 할 수도 있다.<sup>5)</sup>

따라서 북촌리 최하층은 압날 점렬무늬토기인에 의해 일단 형성된 다음 방사성 탄소연대가 가리키는 이중구연토기 사용인들에 의해 새롭게 층위가 재형성된 것으로 이해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 못한다.

그러나 경남지방에서 이중구연토기와 함께 공반되는 이른바 만기줄문토기에 점렬무늬토기가 부분적으로 눈에 띄이고<sup>6)</sup>, 전남지방의 黑山島 패총의 조사보고지 들도 압날점렬무늬토기와 이중구연토기를 동일시기의 것으로 인식함에 비추어<sup>7)</sup> 현단계로서는 무늬 장식수법에 따른 형식변천론을 우리나라 전 지역에 동일한 과정으로 적용할 수가 없다.

사정이 이러하였을 때, 한국과 일본의 여러 학자가 공통적으로 신석기시대 전기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른바 용기문토기의 제주도 출토 예를 북촌리 토

4) 鄭澄元·林孝澤·申敬澈, 《金海水佳里貝塚 I》, 釜山大學校 博物館遺蹟調查報告 4, 1981.

5) ① 任孝宰·權鶴洙, 《鰲山里遺蹟II》, 서울大學校 博物館, 1984

② 金元龍·任孝宰·權鶴洙, 《鰲山里遺蹟》, 서울大學校 博物館, 1985.

6) 鄭澄元, “南海岸地方의 櫛文土器 研究(1)-釜山·慶南地方 晩期櫛文土器의 檢討”, 《釜山史學》 6, 1986, pp. 1~38

7) 金元龍·任孝宰, 《南海島嶼考古學》, 東亞文化研究叢書 I, 1968.

기에 앞서는 결정적인 증거로서 주목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IV.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는 제주도에서 보기 드문 너른 대지가 형성되어 있으면서 경작지가 조성되어 있어 한장밭이라는 지명이 붙었으며, 그 한가운데로 하여 속칭 자구내라고 하는 차귀천이 흘러 차귀섬 앞뒀 포구로 하여 바다로 빠진다.

차귀천 북편으로 해발 148m의 분화구인 唐山峰이 있고 남편으로 해발 65m의 水月峰이 자리잡고 있으며, 그 사이 발달된 20m 이상 높이의 해안 절벽 위에 유적이 있다.

1986년 제주대학교 사학과팀의 지표조사에 의해 당산봉 기슭에서 무문토기와 磨製대팻날 등의 유물을 채집하였는데<sup>8)</sup>, 이는 대체로 原三國期 혹은 三國時代 前期에 대응하는 필자가 설정한 제주도 제3기<sup>9)</sup> 또는 그 직전 단계의 것으로 평가된다.

隆起文土器 유적에 대한 최초의 조사는 고산1리 1226번지 지점에서 1987년 5월 고산리 주민인 左禎仁씨가 흙을 채취하기 위해 땅을 파다 다음에 소개할 후기 구석기 아래의 눌러메기 수법으로 만들어진 石槍을 발견하고 이를 제주대 사학과 尹德重 학생을 경유 필자에게 알려음으로써 시작되었다.

같은 달에 출토지점 일대를 답사한 바, 출토 지점의 주변은 소나무 밭이고 해안쪽으로 10여미터 나가면 바로 해안 절벽을 다다르는 곳이었는데, 이 해안 절벽 바로 위로 폭 0.7m, 깊이 0.5m의 해안 경비 참호가 조성되어 있었고, 이 참호 퇴적층 단면의 서로 다른 지점에서 각 1점의 局部 磨製石斧 剝片 石器를 추가 발견하였다.

이 두점의 석기가 발견된 곳은 서로 40여미터 떨어져 있었으며, 두께 10cm

8) 李濟圭, "濟州島 土器에 對한 一考察" 《耽羅文化》 6, 1987

9) 註3) ① 보고서

정도의 표토층 아래의 두께 40cm 내외의 흑갈색의 화산쇄설성 모래층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 발견후 다시 1988년 1월 재차 동 유적 부근을 답사한 영남대 대학원생 康昌和에 의해 앞서 마제석부가 발견된 지점에서 다시 수월봉 쪽으로 50m 떨어진 지점의 참호 단면 50cm 바닥 가까이에서 1개체분의 용기문토기를 수습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유물의 채집 상황을 미루어 보면, 지름 백여미터 되는 이 일대에 유물이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앞서의 유물의 층위적 공반관계를 확인하기 곤란하였다.

다만 용기문토기가 신석기시대 전기 것으로 인정되고 타제석기 2점이 후기 구석기 전통의 제작수법과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마제석기 또한 打製 조정 후 부분 磨製한 석부라는 점에서 古式으로 평가되어 대체로 시기적으로 공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 글에서 함께 소개하는 것이다.

## V.

용기문토기는 구연부 직경 46.4cm의 넓은 아가리를 가진 것으로 두께는 0.8cm이고, 바닥편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전체 器形은 平底의 廣口鉢일 것임이 다른 지방의 발견 예로 보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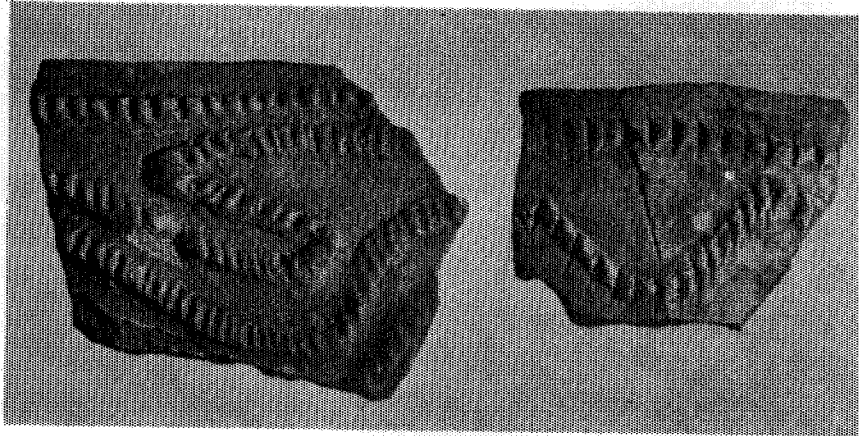
용기문은 그 굵기가 0.6cm~0.7cm, 높이가 0.4cm~0.5cm 정도의 반원형의 비교적 굵은 점토띠로서, 구연부 2cm 아래에서부터 세 줄로 하여 장식한 太線隆起文 혹은 隆帶文 형식을 갖춘 것이다. (도판 8~11)

위 첫줄은 수평을 이루지만 두째줄과 세째줄은 일정한 간격마다 각각 S자형과 포물선형으로 크게 휘어진 형상을 하고 있다.

동일한 모티브의 용기문 장식 토기로 釜山 東三洞 패총 최하층 출토 예가 있는데<sup>10)</sup> (삽도 1) 세줄의 용기문과 두, 세째줄의 커브 모양은 영락없이 고산

10) 金元龍編, 〈原始美術〉, 《韓國美術全集》1, 1975. p.29. 이 유물의 해설을 보면 이 토기의 태토와 施文法이 일본九州의 도도로기식 토기를 담고 있다 하였다.

리 것과 같으며, 다만 동삼동 예에는 용기문 위에 刻線 장식을 촘촘히 베푼 것이 차이가 난다.



〈삽도1〉 부산 동삼동출토 용기문토기편

토기의 태토는 자간한 모래가 섞인 점토질로서 적갈색 내지 황갈색을 띠고 있다. 그릇 안쪽면은 아무런 조정흔적이 없이 매끈하고 바깥면은 다소 마모되어 면이 거칠지만 원래부터 刻線이 있었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토기 파편이 떨어진 면으로 보아 적분법으로 만들었음이 확인된다.

타제석창은 거친 현무암 조각으로 만든 것으로, 습베를 갖춘 형식이며 길이 8.5cm, 폭 3cm, 두께 1cm의 크기를 갖고 있다. 후기 구석기시대의 솔부트레안 석기의 제작수법인 자간한 눌러메기 수법으로 성형을 하였다. (도판 12-①)

박편석기 1점은 역시 현무암제로 길이 4.3cm, 폭 3.5cm, 두께 1.2cm 크기를 가진 소형 석기로 굽개 모양을 갖추고 있다. 주위를 돌아가며 눌러메기 수법으로 조정한 흔적이 분명하다. (도판12-②)

석부 1점은 安山岩製로 길이 14.6cm, 폭 4.3cm, 두께 2.5cm의 비교적 긴 석부로 굽직한 자갈돌을 타제 조정한 다음 날부분과 몸통 부위를 부분적으로 간局部 마제석부이다. (도판 13)

VI.

용기문 토기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를 형식의 분류와 변천, 분포와 계통, 그리고 그 상대연년과 절대연대에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1)</sup>

형식의 분류는 대부분이 구연부에 장식된 무늬의 장식수법과 형태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은 용기문의 굵기에 따라 太線 용기문과 細線 용기문, 隆帶文과 隆線文, 혹은 용기대문과 용선문 등으로 구분하고, 그밖에 용기문에 沈線文 등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변형 용기문이라 하여 따로 설정하고 있다.

그중 고산리 용기문토기와 같은 용대문 혹은 태선 용기문토기 중에는 평행 용기선문과 기하학적 용기문의 형식이 있어 鄭澄元은 전자(양양 오산리 출토례가 있음)를 보다 이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용기문토기가 출토한 유적을 살펴보면 삼도 2에서 보듯이 동해안과 남해안 그리고 제주도와 일본 쓰시마 등지에 분포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서해안 지방에서는 아직 발견되고 있지 않아, 전자 지역에 전형

11) 이하 앞서 註)의 문헌 이외에 필자가 인용한 한국 용기문토기에 대한 주요 연구 논문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① 任孝宰, "慶南 東萊郡 西生面 出土 隆起文土器", 《考古學》 1輯, 1968, pp. 115~125.
- ② \_\_\_\_\_, "新石器時代の 韓·日文化交流", 《韓國史論》, 1986, pp. 1~29.
- ③ 鄭澄元, "南海岸地方 隆起文土器에 대한 研究-形式分類와 編年을 中心으로-", 《釜山史學》 9輯, 1985.
- ④ 韓永熙, "新石器時代-地域的 比較", 《韓國史論》12, 1984, pp. 479~521.
- ⑤ 坡田邦洋, 《韓國隆起文土器의 研究》, 1978.
- ⑥ 廣瀬雄一, "韓國隆起文土器論-編年을 中心として", 《異貌》 11, 1984, pp. 21~34.
- ⑦ \_\_\_\_\_, "韓國隆起文土器의 系譜와 年代", 《異貌》 12, 1986, pp. 17~40.
- ⑧ 小原哲, "韓國隆起文土器의 檢討", 《伽倻通信》 13·14, 1985, pp. 1~36.



제주도 高山里 슬토 隆起文土器



<삽도2> 한국 용기문토기 슬토 유적

적인 빗살무늬토기가 빈약한 것과 달리 이 지역에는 빗살무늬 토기가 성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양 지역에 있어 문화 영역의 다름을 생각할 수 가 있겠다.

그 변천에 대해서는 용기대문-용기선문-용기선+침선문으로 이행하였다는 鄭澄元의 주장이 있고 이와는 달리 三角隆線-半円形隆線-隆帶 沈線의 단계로 이행했다고 하는 일본학자의 주장이 있어 크게 둘로 갈린다.

이처럼 용선문과 용대문의 선후 관계에 있어 상반되는 주장은 그 계통 혹은 기원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 한국 용기문의 계통을 Novopetrovka 등 중국 동북부 및 Amur 강 유역의 유적의 토기에 두고 있는 데에 후자는 일본 西九州의 前期 繩文土器 형식인 도도토기식 토기(蠡式 土器) 에 두고 있는 것이다.

양쪽의 立論 근거는 여러 측면에서 따져 볼 수 있지만, 대체로 전자의 입장에 선 학자들은 한국 빗살무늬토기를 연구한 한국인 및 일본 九州의 학자들이고, 후자의 입장에 선 학자들은 광복전 日人 연구자 및 일본 승문토기를 연구해 왔던 학자들인 점을 지적할 수가 있다.

이처럼 용기문토기 자체의 형식 변천에 대해서는 상반된 주장이 있지만 용기문토기의 상대편년 및 절대연대에 관해서는 양양 오산리 용기문토기층에서의 방사성탄소 연대, 부산 동삼동 패총의 최하층에서의 층위적인 확인과 방사성 탄소연대, 金海 水佳里 패총에서 용기문토기가 출토되지 않는 침선문, 이 중구연토기 문화층의 방사성탄소 연대 그리고 쓰시마 지방의 同 토기 출토 층위의 방사성탄소 연대의 결과로써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남해안 및 동해안 지방에 서해안식 침선문계 빗살무늬토기가 유입되기 이전의 신석기시대 초기 혹은 전기의 것으로서 다음 방사성탄소연대 자료에서 보듯 절대연대로는 기원전 5,000~3,000년에 소속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양양 오산리 유적

7050 ± 120B. P. (KSU-515)

제주도 高山里 출토 隆起文土器

부산 동삼동 패총 최하층

5820 ± 140 B. P. (Gak 6666). 5500 ± 100 B. P. (Gak 6667).

5160 ± 120 B. P. (Gak 6668). 5190 ± 130 B. P. (Gak 66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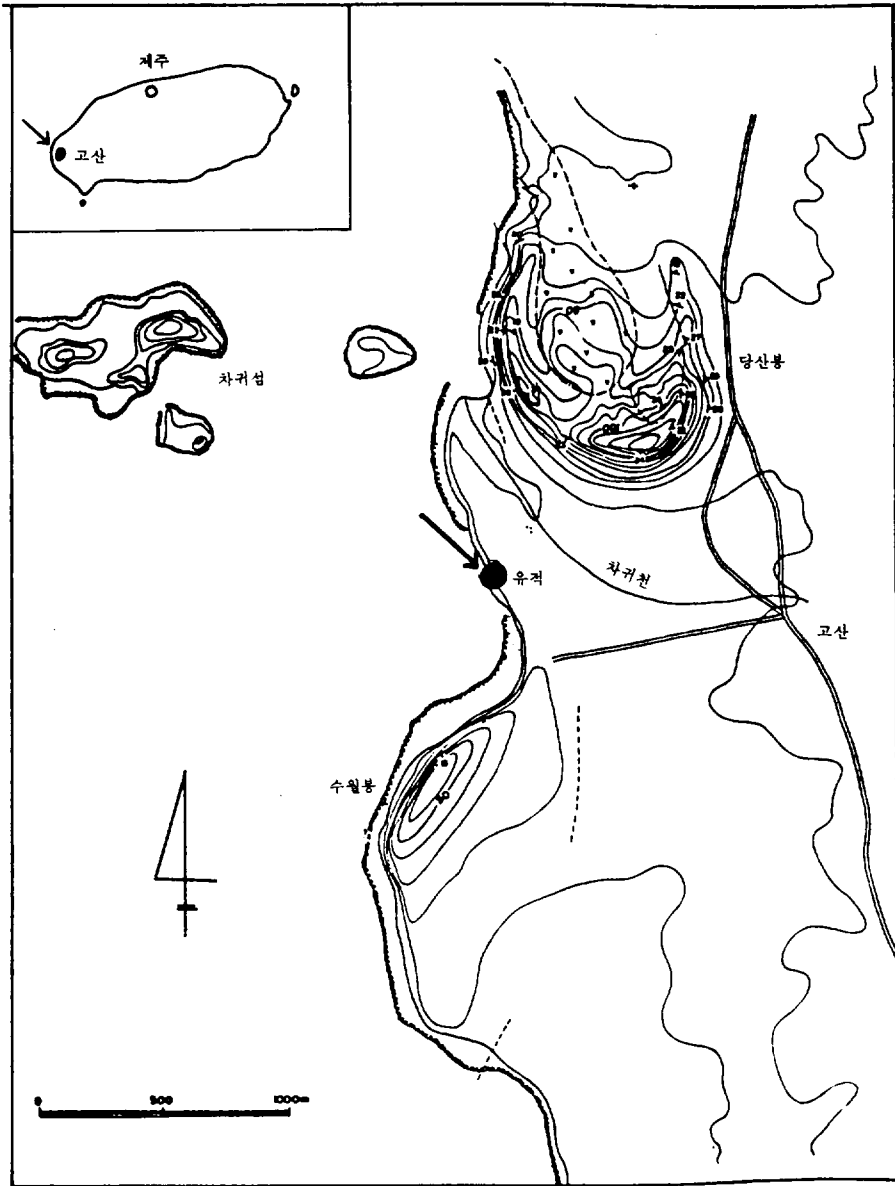
對馬 越高 유적

6590 ± 160 B. P. (Gak 6876). 6860 ± 120 B. P. (Gak 6878).

V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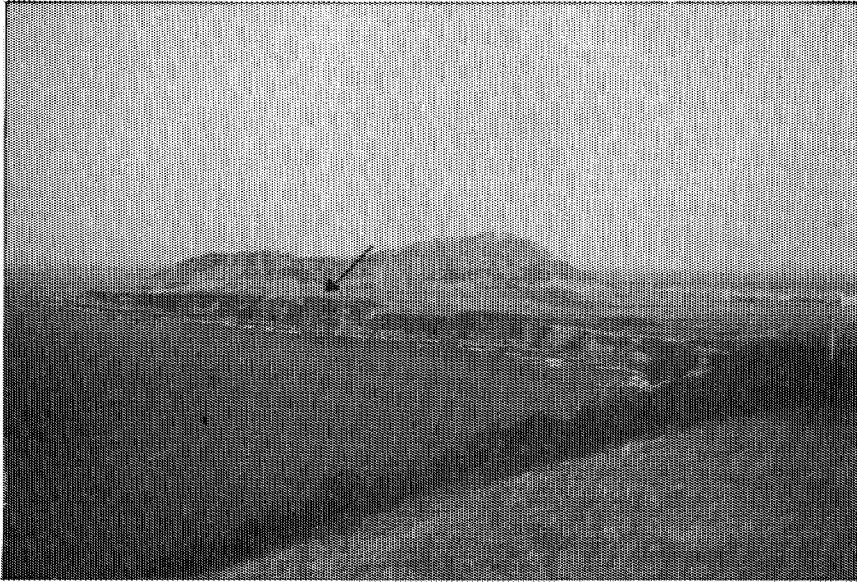
위의 한국 용기문토기의 연구성과를 종합할 때, 고산리 용기문토기는 북쪽으로 Amur강 유역에서부터 한반도 동해안과 남해안을 따라 잇는 분포 영역의 최남단에 위치하며, 용기문토기 중 이른바 태선 용기문 형식에서도 기하학적인 용기문 형식에 들어간다. 공반되는 석기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古式의 剝片石器가 있고, 가장 유사한 형식의 토기가 출토한 부산 동삼동 패총 최하층의 방사성탄소연대로 볼 때, 그 추정연대는 기원전 4,000~3,000년경인 바, 장래 새로운 자료가 확인되기까지 섬으로서의 제주도에 처음 사람이 살았던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겠다.

(보고문 중의 토기 실측도는 미술교육과 졸업생 李昶錫의 도움을 받아 작성된 것으로, 이에 고마움을 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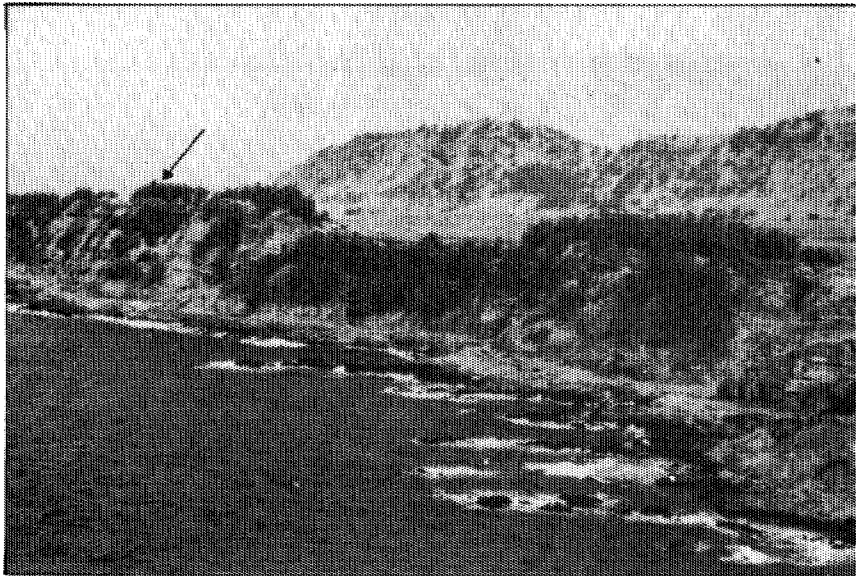


〈도판1〉 유적의 위치(1표 표시)

제주도 高山里 출토 隆起文土器



〈도판2〉 유적 원경 (남쪽 수월봉에서)



〈도판3〉 유적 근경 (남쪽 수월봉에서)



〈도판4〉 용기문토기 출토지점 (남쪽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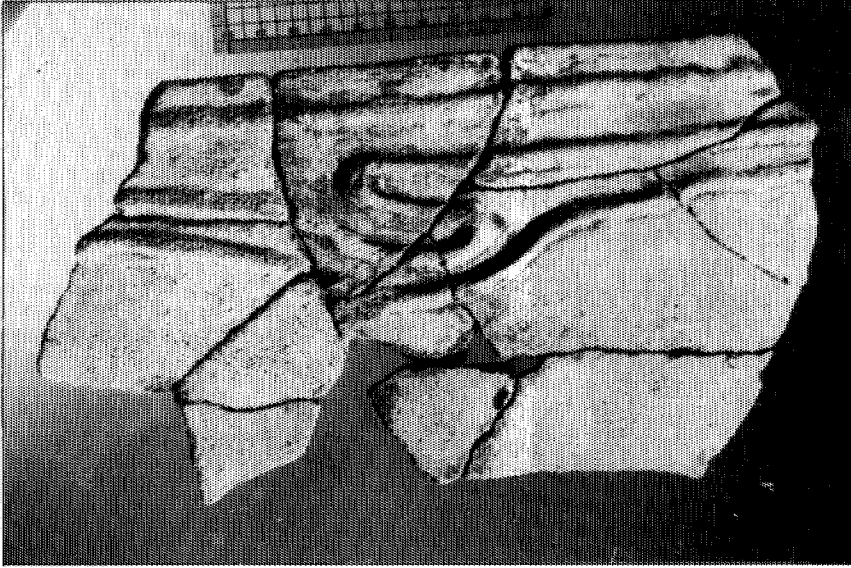
〈도판5〉 용기문토기 출토지점 (북쪽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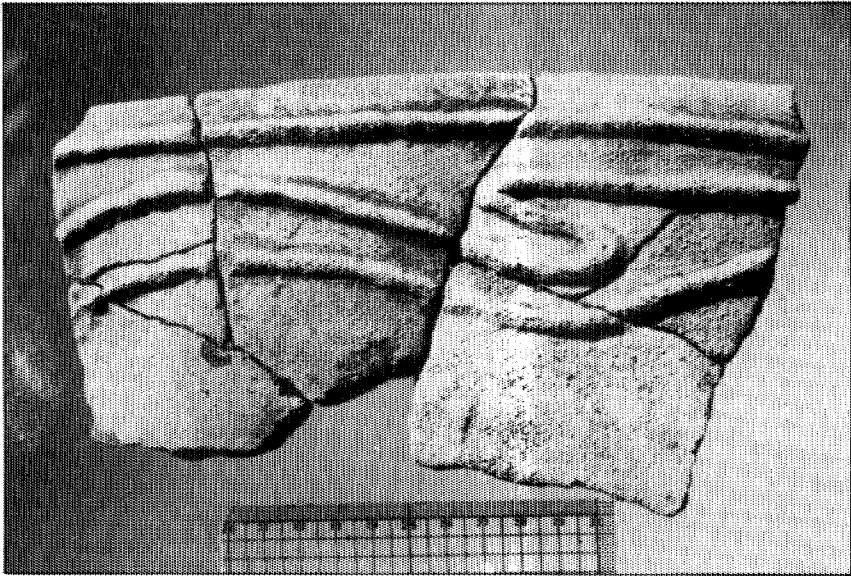
〈도판6〉 용기문토기 출토 상태



〈도판7〉 용기문토기 출토 상태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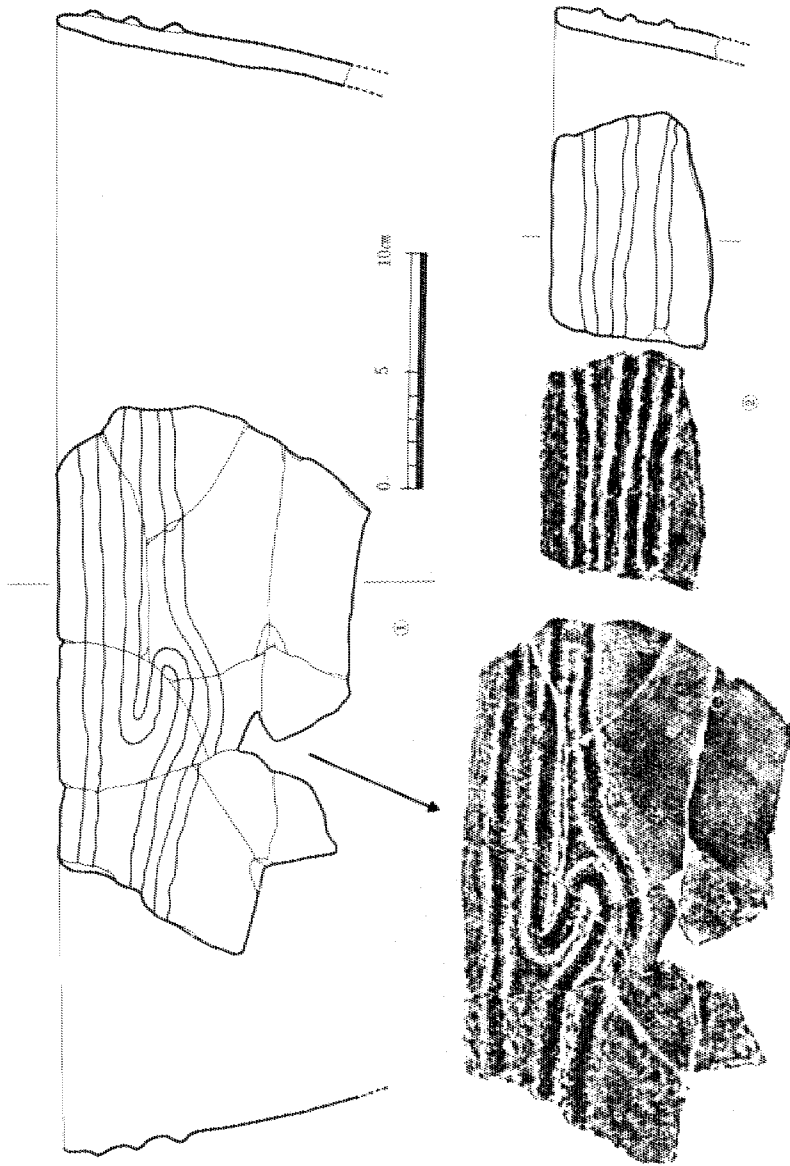
〈도판8〉 용기문토기 구연부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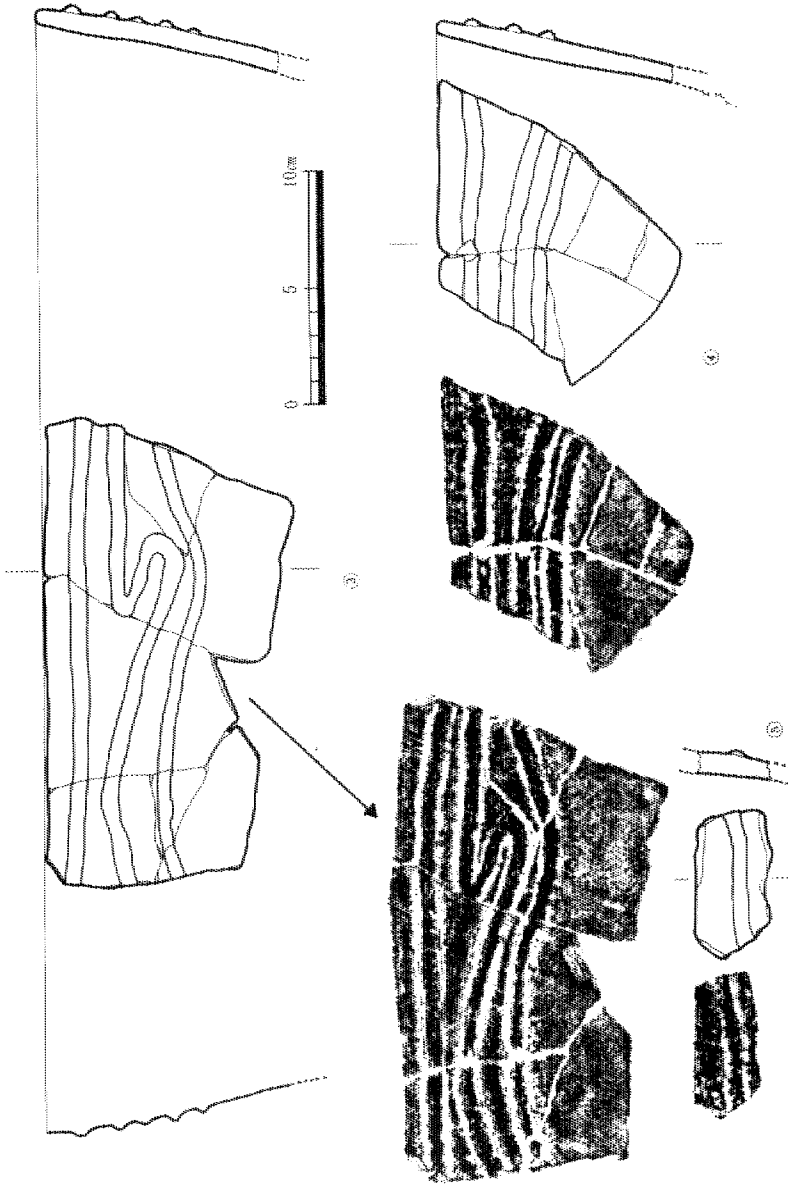
〈도판9〉 용기문토기 구연부편 (2)



제주도 高山里 출토 隆起文土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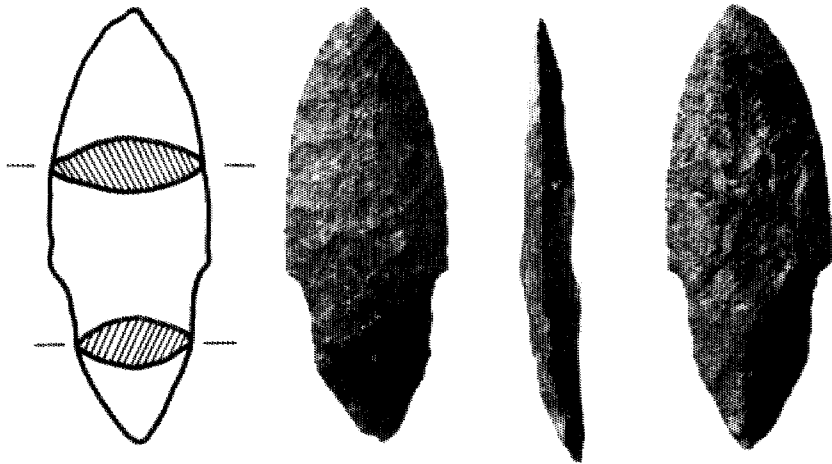


〈도판10〉 용기문토기 구연부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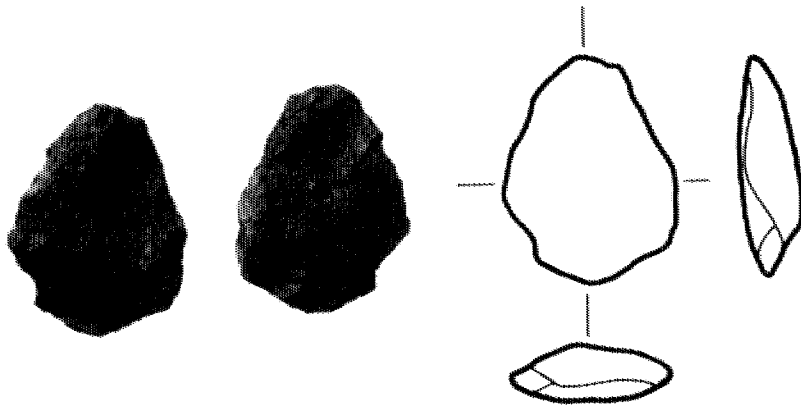


〈도판11〉 송기문화기 구연부편 (2)

제주도 高山里 출토 隆起文土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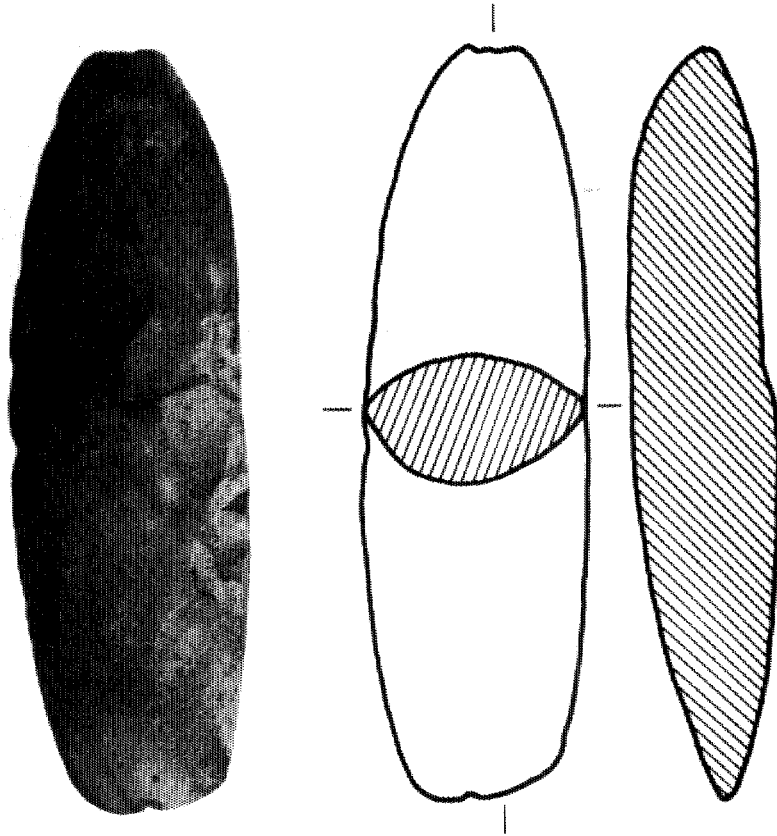


①



②

〈도판12〉 석창과 박편석기



③

〈도판13〉 마제석부